

지속가능 자원봉사제도, 필리핀 아클란주에 ‘꽃 피어’

아클란주 공무원 15명, 전남광주서 교육·연수
사업 실행계획·조례 제정·거버넌스 구축 등 선도

전남광주에서 자원봉사정책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필리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사업실행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제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주자원봉사센터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필리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민관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마지막 과정으로, 필리핀 아클란주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연수는 아클란주가 1·2차년도 연수에서 공유해온 자원봉사와 재난대응 경험을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클란주는 그간 연수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례시의 선진 자원봉사 제도를 정책에 반영했다. 아클란주는 연수에서 수립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구체화했으며, 자원봉사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3차년도 연수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재난 조직 관리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형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회복, 자원봉사 현장실습, 데이터 및 성과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연수 3일차인 18일에는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연수단 환영만찬이 열렸다. 환영만찬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주자원봉사센터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필리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민관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별시 행정부시장과 베르나데트 테레세 C. 페르난데스(Bernadette Therese C. Fernandez) 주한 필리핀 대사, 배정배 광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장과 아클란주 공무원들, 자원봉사기관·국제협력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과 연대

가 재난 대응 및 자원봉사 분야의 경험

이어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마

광주기독병원 ‘그린앙상블’, 호신음악콩쿠르 수상

문화예술 분야 특별채용 장애인 예술단... 실용음악 부문 1위

광주기독병원 소속 장애인 예술단인 ‘그린앙상블’이 최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0회 호신음악콩쿠르’ 실용음악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그린앙상블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청의 지원과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운영으로 활동해 온 남구장애인예술단이다.

올해 초 광주기독병원이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 및 안정적인 경제

적립을 돕기 위해 시행한 ‘문화예술 분야 특별채용’을 통해 단일 전원이 광주기독병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번 콩쿠르에서 그린앙상블 단원들은 실용음악 부문에 참가해 그동안 광주기독병원 직원이자 전문 예술인으로서 꾸준히 연습하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 쌓아온 뛰어난 음악적 기량과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였고, 이 결과 당당히 실용음악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그간의 노력과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 직원인 그린앙상블 단원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콩쿠르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광주기독병원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장애인예술인 특별채용이 단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립이라는



광주기독병원 소속 장애인 예술단인 ‘그린앙상블’이 최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0회 호신음악콩쿠르’ 실용음악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기독병원은 그린앙상블 단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성장할 수 있

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 병원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광양제철소재능봉사단인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는 최근 백운아트홀에서 독일 전통 관악단인 ‘독일 제8 후사렌 부케트럼펫 코어’와 한국·독일 오케스트라 합동 콘서트를 개최했다.

포스코광양제철소, 한·독 우정의 콘서트 개최

양국 우정 표현·관람객들에 아름다운 선율 선사

포스코광양제철소재능봉사단인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는 최근 백운아트홀에서 독일 전통 관악단인 ‘독일 제8 후사렌 부케트럼펫 코어’와 한국·독일 오케스트라 합동 콘서트를 개최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합동 콘서트에서 양국의 연주자들은 트럼펫과 관악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서사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정을 표현하고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독일 제8 후사렌 부케트럼펫 코어는 전통 후사르 군복을 착용하고 유럽행진곡과 관악곡을 연주하는 음악 단체로, 과거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8 후사르 연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유럽의 유명 관악단이다.

이번 공연에서 18세기 독일군의 유명 군대 행진곡인 ‘Des sauer Marsch’, 독일 작곡가 노르베르트 켈레의 폴카 연주곡인 ‘보헤미아의 꿈’이 연주됐다.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는 단목무대에서 설운도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SG워너비의 ‘라라라’ 등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곡을 연주했다.

또 합동 연주회에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대문 헌타스의 주제가 ‘Golden’, 독일의 작곡가 칼 테이케의 유명 군악 행진곡인 ‘오렌 동비블’ 등을 선사했다.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이번 한·독 우정 콘서트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단원들이 펼치는 선율이 주민들에게 맑은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lgjin@

지역·단체, 여수섬박람회 성공 개최 힘 보태

전남광주산림조합협·여수종합건설협, 입장권 구매 약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단체들이 입장권 구매와 홍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청에서 전남광주산림조합협의회, 여수종합건설협의회와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 약정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 이광우 전남광주산림조합협의회장, 김치곤 여수종합건설협의회장,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모두 4100만원 규모의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약정은 지역 산림·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관람객 유치와 홍보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산림조합협의회와 여수종합건설협의회는 앞으로 조합원과 회원사,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여를 안내하고 입장권 구매와 관람을 독려하는 등 홍보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섬박람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례시와 여수시의 대외



전남광주산림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지역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홍보 및 입장권 판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swg331@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모집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구당침·뜸 수강생=가족전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7월8일)

쥐 48년생 지인의 투자 유혹 등을 조심하십시오
60년생 지나치다면 부속함만 못하니라
72년생 추진하는 과정에 충실 하라
84년생 함께한다면 상호간에 발전을 이룰 것
96년생 일단 맛없는 것부터 먹으라

토끼 51년생 그 사업은 내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63년생 관재수 따르니 금전관리를 잘하라
75년생 파곤해 의욕 저하되니 휴식이 필요
87년생 전도양양하니 대단히 희망적이다
99년생 역마살이 들어왔으니 동분서주

말 54년생 바빠 돌아다니는 안정감 없는 날
66년생 귀인 도움으로 재산증식 될 것
78년생 안목 넓혀 천신할 때
90년생 마지않아 적용하게 되니 임하라

돼지 57년생 몸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는 하루
69년생 대안이 없다면 그대로 두자
81년생 판국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93년생 내가 너무 어리다고 한탄 말라

소 49년생 득 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한다
61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으니라
73년생 무리하다면 마지않아 곤혹스러워진다
85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낸다
97년생 새로운 이성 사귀지 말라

송 52년생 욕심은 금물 한발 물러서라
64년생 못하지 않던 감투를 쓸 운세
76년생 중단 없는 전진으로 성과 이루는 하루
88년생 신중하면 득을 얻는 날

양 55년생 마음먹은 대로 일을 추진하면 해결된다
67년생 바른 마음으로 피어난 재물 쌓인다
79년생 운세가 좋으니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91년생 헤어졌던 연인 우연히 상면 할 것

개 58년생 애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70년생 여수선하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82년생 욕심 부리면 나중엔 더 큰 손해
94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돈소문을 들기 들게 되니 주의하라
62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진행하라
74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조심하라
86년생 가족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라
98년생 주위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

범 53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해결될 것
65년생 불청객에게 많은 시간을 뺏긴다
77년생 물다도 생각되면 밀어 부치라
89년생 무엇이든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

원숭이 56년생 그것도 욕심부리면 허사다
68년생 점진적인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80년생 행운이 따르는 운이 보인다
92년생 뒷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보라

돼지 59년생 변하지 않으니 뜻을 이룰 것
71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라
83년생 쓸데없는 지출 없도록 절약할 때
95년생 뒷사람에게 인정받는다